

비벌튼 시립도서관의 도서관봉사

김 창 의

(전 한국신학도서관 협의회 사무국장, 목사)

미국의 서북지방은 미 대륙에서 한국에 제일 가까운 곳이다. 봄가을마다 독서주간은 있지만 독서의 계절은 일년 365일 연결된다고 하겠다. 문화인의 척도인 독서열과 도서관이 생활의 중심을 이룬은 컴퓨터 시대에도 더욱 증진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일은 10년 전부터 도서관 발전을 위한 [비전 2000]을 준비하며, 분주 신속한 일손 가운데도 친절과 미소를 아끼지 않는 두뇌의 전문직들이 타운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늘어나는 일감과 인구증가로 도서관마다 증가 일로에 있다. 목회자의 일과중 비교적 한가한 월요일 오후, 나의 발길은 비벌튼 시립도서관(Beaverton City Library)의 서가로 옮겨졌다. 수많은 도서로 꽉 차여 있는 '서림'을 지나 한 모퉁이를 돌았을 때, 저편에 낫익은 한국어 책들이 눈에 띄어 성큼 다가섰다. 주위를 살펴보니 일본어 서적들과 월남어 서적이 즐비하게 꽂혀 있었다. 이는 마치 미국식품점에 김치 병이나 두부 등 동양인의 구미에 맞는 상품이 늘어나듯이 우리네가 수천년간 애용해 오던 식품이기에 수요공급의 배려가 당연한 듯 이제 독서인구도 이만 못하랴고 자념해 보기도 하였다. 필자는 2년전에 이 도서

관 도서수리부(Book mending)에서 1년동안 자원봉사를 한 바가 있었는데 그때 도서관봉사의 확대와 독서계층의 증진을 보며 과연 선진문화 사회임을 부러워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한결 도서관에 친근감을 갖게 된다.

오레곤의 인문지리

오레곤은 산과 강 그리고 바다가 맞붙은 미 서북지역의 천혜의 절경이요, 자연보호의 선구지이며, 고도의 Astoria와 장미도시인 포틀랜드에는 2천마일을 구비치며 태평양으로 흘러내리는 콜롬비아 강반에 자리잡은 평화로운 한쪽의 그림같이 아름다운 땅이다. 포틀랜드는 서울과 항공편으로 9시간 소요되는 가장 가까운 서북도시로, 북쪽은 밴쿠버 캐나다와 시애틀, 남으로는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등으로 연결되는 2시간 거리의 요지이다. 태평양 연안의 오레곤 해안에는 아스토리아에서 부르크스까지 40여개의 시립공원이 해안선을 따라 펼쳐있어 101번 국도를 여행하는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수없는 관망대(View Point)가 준비되어 있기에 지루한 여독을 풀며 쉬어가는 곳이다. 저멀리 하늘과 바

다가 만나는 수평선에 피곤한 눈으로 시선을 주며, Cascade 산맥에는 사철에 눈 덮인 후드 산(Mt. Hood)이 시가지를 끌어 안고 동남 평에 웅좌하여 푸른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경관이 늘 새롭게 보인다. 동서로 흐르는 콜롬비아강은 연어와 준치 등 강태공의 후예들의 낚시장이요, 수상스키와 유람선이 여가를 즐기는 레저산업의 중심지인 동시에 서북인의 생명줄이요, 서편에 열린 태평양은 동서문화의 교류장이며, 남북으로 연결되는 Willamet강과 계곡은 오레곤의 쌀라드 불이다. 수억년전 화산이 터진 현무암이 구능과 절벽에는 일백여개의 폭포수가 흘러 떨어지는 84번 도로의 연변은 서부 개척자들이 포장마차로 살기좋은 오레곤으로 들어온 오레곤 트레일(Oregon Trail, 1843)의 역사기록을 남겼으며 그들은 포틀랜드를 일컬어 '에덴의 관문의 땅(The land of Eden's Gate)'이라고 불렀다.

비벌튼 시와 한인사회

오레곤 한인사회의 발자취는 하와이 초기이민 길로 거슬러 올라가며 1903년 13세대에 가족을 따라 하와이에 온 김성옥씨는 6식구가 모두 농장에서 일하다가 28세에 결혼하고 Salem, Oregon에 와서 1968년까지 54에커에 양파농장을 경영한 것이 시초가 되어 첫번 오레곤의 한인 뿌리로, 그후 초기 유학생과 1970년이후 이민자들로 지금은 약 2만 3천의 한인으로 추산되고 있다. 33년의 한인회 활동과 한인회관, 복음이 한인들에게 심겨진 것은 35년이 흘렀으며 현재 50개 가까운 한인교회가 성장하고 있으며, 350여개의 세탁업계에 한인경영이 반수를 차지하는 180여곳, 많은 그로서리 협회와 한인상공회의소 등 여러 생업에 종사하며 전문직으로 임용된 상원위원은 한인 1세로서 미국 주류사회의

정계에 투신하여 주상원의회의 경제분과 위원장으로 새 선임되어 활약함은 우리 소수민족의 자랑이요, 오레곤의 보배이다. 오레곤주 아세안 커미셔너 박성국의장, 미주한인 상공인 총연합회 김벽직 회장, Nike 본사의 부사장 하만경 박사, 서북신학대학원에 이사와 객원교수로 이원설 박사 등 한국기업으로는 현대자동차회사가 미주에 선착장을 포틀랜드로 지정하여 미국 자동차업계의 운송이 번성하며, 오레곤주와 한국 도시의 자매결연은 사회지도자들의 큰 공헌이라고 하겠다. 오레곤주는 전라남도과 Portland-울산시, Beaverton-천안시, Gresham-속초시, Salem-김해시, Eugene-진주시와 각기 자매도시가 체결되어 환태평양시대에 부응하는 동서의 상호협력과 번영을 위한 값진 교류가 많은 도시이다.

외국어 도서자료 현황

비벌튼은 포틀랜드에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한인 밀집지대요, 쾌적하고 아름다운 서북 외각의 주택지이기에 근래에는 더욱 기하급수적으로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98년말 현재 비벌튼 인구가 6만8천2백 여명인데 이는 '84년보다 무려 203%나 증가한 것이며 장서현황은 38만 9천9백7십여권으로 '84년보다 무려 408%나 급증되었다. 물론 도서 열람율 역시 324%나 증가일로에 있는 것이다. 참고사서 Caye Harrison에 의하면 열람용 외국어서적은 관할내의 소수민족 인구비례와 ESL(영어가 자국어가 아닌자로 유학생이나 이민자들이 필요에 의하여 수업하는 과목) 학군의 학생수를 감안하여 일년 예산중 도서비가 책정되며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효과적인 도서관 봉사에 임하려고 진행중이라는 조언을 받았다. 인구가 많은 서반아어계의 자료는 1996년부터 시작되었기에

1,000권의 스페인어 도서가 열람되고 있으며, 1998년부터 한국어와 월남어자료를 수집하는데 350여권과 일본어 94권 등 다른나라의 도서자료도 수집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어 서적은 '한국도서'라는 표지판아래 많이 읽혀지는 세계문학전집, 수필, 미국사, 생활의 지혜 등 현대인의 정신문화에 관한 서적120여권과 일간지 등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다. 또한 영문서적으로 한국학에 관한 자료들은 한국전쟁에 관한 10여권과 수권의 도서가 있을 뿐 매우 빈약하고 오래된 자료들이다. 시립도서관측은 신간도서 구입뿐만아니라 문화와 지역사회를 사랑하는 도시기증자의 손길도 기다리고 있다. 문제는 시립도서관에 대한 주민들의 독서인구의 저변확대가 아쉬운 점이다. 이민자들은 생활개척을 위한 고달픈 삶이라 하지만 첨단문화의 혜택을 누리려 한다면 당연히 문화 발전을 위한 봉사 와 헌신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한 협력과 희생정신이 절실히 요구되며, 이는 언제까지나 허울 좋은 언어문제로만 돌려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된다.

군립도서관(County Library)

오레곤주의 워싱턴군은 274,000명의 인구로 2005년에는 409,000명으로 추측되고 있는데 모두 11개의 도서관이 협력체를 이루고 있으며 열람시간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9:30~저녁 9:00까지 열람되며, 금요일과 토요일은 오전 9:30~오후 5:30까지 그리고 일요일은 반수의 도서관이 문을 닫고 반은 정오부터 5:30까지 열람되고 있어서 필요하게 이용되고 있다.

도서관명	장서수	독서실의자	사서와직원	넓	이
Tualatin	95,880	96	18	24,550	"
Tigard	131,210	134	22	32,840	"
Beaverton	356,310	290	58	83,795	"
Hillsboro	203,330	204	37	51,745	"
Cornelius	40,675	32	4	6,215	"
Forest Grove	100,00	100	18	10,500	"
Banks Com.	22,970	23	3	4,000	"
Town Center	137,589	137	23	34,315	"
Cedar Mill	84,201	84	15	21,300	"
West Slope	40,895	32	4	6,230	"

오레곤 도서관협의회(OLA)

오레곤 도서관협의회는 비전 2000을 내다보면서 18명의 특별위원회를 결성하고 New Millenium에 도서관 자료의 확충과 인구증가에 대한 도서관봉사의 확대 사회진흥을 위한 협력체제로 10년전부터 도서관 정책을 세웠다. 1991년 8월 16일에 첫모임을 갖고 당연 9월 20일에 OLA 이사회에 통과되었다. 오레곤내에는 공공도서관 203개, 학교도서관 1,237개, 대학도서관 70개, 특수도서관 158개.

1. 모든 주민들이 편리하고 유용하게 독서할 수 있도록 봉사의 극대화를 기한다.
2. 모든 도서관은 주의 교육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령전 아동의 독서확대와 노인독서의 저변확대에 힘쓴다.
4. 모든 학교도서관은 교육자료 매체를 중심으로 전자매체 이용과 프린트를 위하여 전문인재교육 증서를 받아야 한다.
5. 오레곤의 도서관은 자료연결과 교환 등 폭넓고 신속한 봉사를 기한다.
6. 지방자치 단체와 정부기관에 모든 입법은 도

시간 발전의 협력과 증진을 기하게 한다.

7. 모든 도서관은 주의 경제성장의 노동력증진 그리고 교육증흥에 최선을 다한다.

비벌튼 시립도서관

Allen과 Hall에 소재한 본 도서관은 1984년에 대형식품점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개조하여 용도변경과 실내를 개조하여 19,000Sq ft.로 현재까지 도서관봉사를 하고 있는데 비벌튼 도서관은 오래전에서 제일 분주하며 번성하는 도시의 공립도서관이다.

구분	1984	1998	증가율	비밀터 영상자료(97~98)
열람자수	33,450	68,200	203%	캐세트, 콤팩트 디스크 19,030
소장도서	94,121	385,978	408%	비디오 카세트 9,113
대출빈도	384,790	1,247,807	324%	시디롬, 마그넷 테이프 239
참고봉사	15,809	127,044	803%	분류되지 아니한 자료 6,432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시설로는 원활한 도서관 봉사를 이룰 수 없어서 도서관 이전과 건축을 위하여 도서관 신축위원회가 결성하게 되었다. 도서관 협의회에서 조언하는바는 성장하는 도시의 시립도서관으로서 적어도 현재보다 3배는 커야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투표한 결과 대다수로 가결되었으며, 앞으로 2년후에 새로운 지역으로 옮겨 도서관 건물을 신축하기에 이르렀다. 새 도서관 건물은 67,000Sq ft. 5가와 Hall에 건립되며 전에 시청건물이 있던 자리로 교통이 편리하며, 건물옆에 시립 버스 정류장이 도시의 규모와 재정에 따라 설립되는데, 한국에서 볼 수 없었던 특이한 것은 시청과 경찰서와 도서관이 함께 있는 곳을 몇군데서 볼 수 있었다. 이런 형

태는 한 대지위에 서로 독립건물이나 혹은 연결되는 건물로서 소재한다. 이러한 면은 이용자들의 편리와 재정의 절감에 있어서 이상적인 일이라고 본다. 서해안의 Lincoln City 도서관은 시청과 함께 사용되고 있으며, Tigard 도서관은 도서관, 시청, 경찰서가 연립되었다. 새로 신축되는 도서관 건물은 시민들이 편리하고 용이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2층건물로 2천 1백만불이 책정되었으며 건물 규모는 넓은 개가식 서가와 열람자의 출입구가 넓으며 어린이 도서실의 확대, 컴퓨터실, 연구실의 증가, 청소년실, 특수자료실, 회의실, 복합문화자료실, 회의실, 신체 장애자를 위한 시설 확충 등 한적하고 넓은 도서실, 시야가 밝고 채광이 알맞게 설계한 최신의 규모를 갖춘 문화의 산실로서 아름다운 비벌튼 시립도서관의 신축이 완공되기를 기대한다.

독서문화

현대인의 독서력은 문화인의 척도라고 한다. 도서관 실내에는 진학준비를 위한 학생들로 차 있는 것이 아니라 독서계층은 백발에 어깨가 굽은 노인들로부터 학교도 아직 안들어간 어린이들까지 어디서나 책을 읽으며 읽히는 모습은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도 일상중에 도서관을 가까이 하며 정신문화를 풍요케하는 독서에 열심히 해 보자! 근자에는 자동차문화에 운전하는 시간때문에 운전하며 들을 수 있는 청각자료가 풍성해지는데 테이프책자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시대요, 시력이 약한자들을 위하여 큰글자 도서생활을 돕고 있다.

1) 책은 위대한 유산이다. J. 에디슨은 말하기를 책은 위대한 천재가 인류에 남겨주는 유산이며 그것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손자들에게 주는 선물로서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전달된다고

하였다. 2) 도서관은 문화의 축척과 역사성을 지닌다. George Dawson 목사는 말하기를 큰 도서관은 인류의 일기장과 같다고 하지 않았는가! 3) 독서는 풍요한 정신문화를 공급한다. 일찍이 이황은 퇴계집에서 “책을 읽음에 있어서 어찌 장소를 가릴 것이랴!”라고 독서의 중요성을 교훈했다. 미국 현대의학의 거성이며 독서광인 William Osler는 잔 합킨스의 의과대학에 재직하면서 15분 독서로 세상을 놀라게한 주인공이다. 그 원리는 우리가 아무리 생활이 분주해도 하루에 15분을 할애하며 독서하면 1주일에 반권, 일생에 1천권은 독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분명한 일과중에도 양서에 15분간만 할애하여 책을 읽는다면 독서광이 따로 있겠는가! “당신이 이 책을 읽기전까지 어느책이든지 신간이다.(Any book is a new book until you have read it.)”

〈참고서적〉

1. Library Facilities in Washington County 1987~2005 by raymond M. Holt. 19872.
2. Vision 2000 Oregon Library Association 1991 by Lynn Chmelir.
3. Oregon Public Library Statistical Report 1998, Beaverton City Library.
4. Hidden Beauty of Oregon 1998 by Rev. Jacob Chang Kim.
Rev. Jacob Chang Kim 5322 S.W. Lauelwood Ave. Portland, Oregon 97225 USA.

올바른 독서지도 이렇게 하자

99개정판

독서교육의 이론과 실제

김효정 · 김승환 · 한복희 · 송영숙

267쪽/4×6배판
회원보급가 9,600원
ISBN 89-7678-040-X

〈주요목차〉

독서와 독서교육/독서활동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책과 독서자료 관련정보/독서교육의 근본 문제와
지도자의 자질/독서자료의 종류와 특성/독서자료의
활용과 평가/독서교육의 내용과 방법/독서후 정리의
실제/이야기를 통한 독서교육/독서회의 운영
방법/독서와 논술능력/도서관과 독서교육 시행기관

구입문의: 한국도서관협회 사무국 전화 02-535-4868 팩스 02-535-5616